

99/01/04 탱크로리 폭발

12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쌍용정유 유류 출하장에서 탱크로리에 등유를 주유하던 중 갑자기 폭발, 2명 화상, 1명 부상.

기름에서 발생하는 유류정전기로 인해 탱크로리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추정.

99/01/06 주택 화재

15시 35분경 대전 중구 목동 가정집에서 LPG가 폭발, 1명 사망, 1명 화상.

가스렌지가 켜지지 않아 라이터로 불을 켜는 순간 폭발했다는 말에 따라 LPG가 집안에 차 있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1/08 사무실 화재

4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4층 상가건물의 3층 사무실에서 화재, 1명 사망, 5명 화상.

사무실에 잠을 자러 들어가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다 실수로 불을 낸 것.

99/01/10 중국, 폭죽공장 폭발

난징(南京)에서 불법 폭죽공장 폭발사고로 13명 사망.

9일에도 안후이(安徽)성 폭죽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 공장이 폭파되면서 14명 사망.

99/01/12 주택 화재

22시 20분경 경북 구미시 선산읍 가정집에서 LPG가 폭발, 2명 화상.

가스렌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했었다는 말에 따라 냄비안의 내용물이 끓어넘쳐 불이 꺼지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99/01/13 미국 공중급유기 추락

NATO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배치된 미 공중급유기 1대가 아르헨티나 부근에서 추

락, 승무원 4명 전원 사망.

임무를 마치고 공군기지로 귀환하던 중 기체가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면서 폭발, 삼림지대에 추락.

99/01/13 철새 도래지 방화 의혹

회귀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 동천 갈대밭에서 잇따라 화재 발생.

13일 동천 하구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 3천여평의 갈대밭 소실, 지난 달 30일에는 논두렁에 쥐불을 놓다 갈대밭 1200여평 소실.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을 우려한 농민들의 방화 의혹.

99/01/15 분신

13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빌딩 1층 로비에서 주유업자가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 중화상.

주유소 경영난 때문에 사장과 면담하려다 제지당하자 찾김에 분신.

99/01/16 삼림화재

6시 30분경 대구 동구 첨모재 부근에서 불이 나 임야 10여평 소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인적이 드물고 발생시간이 새벽인 점으로 미루어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1/16 공장 화재

19시경 충북 청원군 플라스틱 배수관용 폐비닐 제조업체 (주)석진테크에서 원인미상의 불이 나 조립식 건물 등을 태워 3억여원의 재산피해.

화재 당시 공장 내부의 기계가 가동중이었다는 말에 따라 기계류의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조사중.

99/01/16 공장 화재

20시 10분경 경남 마산시 실험용 시약가

공업체 삼일이화학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각종 실험기와 건물 소실.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의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인화성이 강한 화공약품이 터진 것으로 보고 조사중.

99/01/16 시장 화재

21시 45분경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약상가에서 불이 나 7개 점포 소실.

소실된 점포 중 미역을 튀겨 파는 가게의 화기관리 소홀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

99/01/17 러시아, 미대사관 인근 차량 폭발

10시 30분경 주러 미대사관 인근 경찰초소에서 차량 1대가 폭발.

러시아 당국은 차의 연료인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라 발표.

99/01/17 중국 농민시위, 잇단 폭탄 테러

중국 관리의 부정부패와 중과세에 반발하는 농민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 잇따라 발생.

후난성 창사시에서 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 37명 중경상.

한 남자가 버스가 폭발하기 직전 불이 붙은 담배꽂이를 가방에 집어넣고 10m도 못가 폭발했다는 말에 따라 폭탄테러로 추정.

99/01/20 대만, 폭발사고

8시 16분 대만 포모사 인무공장 VCM공장 제2생산라인의 열분해로 튜브가 파열되면서 대량의 디클로로에탄이 누출돼 폭발, 중국 원화 3,650만원의 재산손실.

튜브 내에 축적된 탄소에 의해 튜브가 마모되어 파열한 것으로 추정.

99/01/23 주택 화재

23시 28분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가정집 지하방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 연기 질식사.

가스폭발 흔적이 없고 가스렌지 전기배선이

심하게 타있는 점으로 미뤄 누전으로 인한 불로 추정.

99/01/24 상가 화재

4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성정동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3개와 차량 2대 소실.

누전이나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

99/01/27 공장 화재

14시 5분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도시락 제조업체 익조산업 공장에서 불이 나 가건물과 성형기기 소실.

폐기물을 쌓아둔 창고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아올랐다는 말에 따라 화인 조사중.

99/01/25 중국 호남성, 폭발사고

중국 호남성 이장현의 한 시장에서 사제폭탄이 폭발, 9명 사망, 65명 부상.

중국에서는 금년 들어 모두 6건의 폭탄 폭발 사건이 발생, 사회불안을 야기.

99/01/29 공장 화재

5시 40분경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정화조 제작업체서 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공장 건물과 기계류 등 소실.

보일러실 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남.

99/01/29 방화 자살

2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

별거중인 아내를 집에서 살해한 후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

99/01/31 공장 화재

3시 20분경 대구 북구 노원3가 영우염직에서 기계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공장 내부와 기계 소실.

원사 건조작업 중 건조기에서 불꽃이 치솟았다는 말에 따라 건조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